■ 허정무호, 요르단전 아쉬운 2-2 무승부

축구 대표팀 박지성(가운데)과 조원희 등이 1일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짝을 이뤄 회복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멍난 수비’ 재생술 급하다

‘밀집전술을 뚫을 공격 비책과 수비 조직력을 완성하라’ 짜릿한 승리를 앞세워 가벼운 마음으로 원정길에 오르려던 허정무호의 ‘최종예선 진출 시나리오’가 요르단과 비기는 바람에 차질을 빚게 됐다.

요르단(7일)·투르크메니스탄(14일)전 대비

상대 ‘밀집수비’ 뚫을 측면 공략법도 세워야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달 31일 요르단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3차 예선 3조 3차전 홈 경기에서 두 골을 먼저 넣고도 갑작스런 수비난조로 두 골을 내주며 2-2 무승부를 거뒀다.

한국은 1승2무(승점 5)의 무패행진으로 조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1승1무·승점 4)이 ‘약체’ 투르크메니스탄 원정(2일)을 앞두고 승리가 예상되고 있어 선두자리를 내줄 수도 있는 처지다.

이 때문에 한국은 요르단(7일) 및 투르크메니스탄(14일)과 잇따라 치러야 하는 ‘지옥의 원정 2연전’을 앞두고 지금까지 드러난 대표팀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차분하게 점검하는 반성의 시간이 절실하다.

◇밀집수비 뚫기 해법 = 요르단 대표팀을 이끄는 마르티뉴 빈가다(55) 감독은 한국과 무승부를 거둔 뒤 “홈에서도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펼칠 것이다. 비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허정무호가 또 한번 최대 7명까지 동시에 수비에 가담하는 밀집수비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대표팀은 요르단전에서 원톱으로 나선 박주영(서울)이 왼쪽 공격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자리를 바꿔가면서 전방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피해 침투하려고 했지만 상대 수비수들이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움직임은 많았지만 수비수들이 말려들지 않았던 것.

밀집수비 뚫기의 정석인 측면 돌파 역시 정확한 크로스의 부재로 아쉬움을 남겼고, 프리킥과 코너킥 등 세트피스 상황 역시 위협적이지 못했던 만큼 허정무 감독은 요르단 원정을 앞두고 공격 전술의 첫 단계부터 재점검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수비 조직력을 키워라 = 포백의 약점은 공격가담이 활발한 좌우 윙백들의 뒷 공간이 비고 역습 상황에서 수비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 허정무호 역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워 중앙 수비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술을 택했다.

중앙 수비수로 나선 이정수와 곽희주(이상 수원)는 경기 초반부터 후반 중반까지 큰 문제점 없이 경기를 이끌었다.

또 후반 10분께 곽희주가 볼 트래핑 실수로 상대 공격수에게 볼을 내주며 역습 상황에 처하자 이정수가 끝까지 따라붙어 볼을 빼앗는 등 유기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후반 중반 이후 요르단의 역습이 이어지면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후반 34분 단 한차례 크로스에 동점골까지 내주는 어이 없는 실수도 나왔다. 공격수의 침투를 1차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수비형 미드필더와 순간적으로 간격이 벌어진 중앙 수비수들의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연합뉴스

‘태극남매’ 짜릿한 역전드라마

임동현·윤옥희 남녀 결승서

초반 부진 털고 막판 뒤집기

양궁 월드컵 개인전 ‘금’

임 동 현

윤 옥 희

남녀 태극궁사가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극적인 역전드라마를 연출하며 개인전 금메달을 휩쓸었다.

윤옥희(23·예천군청)는 1일(한국시간) 터키 안탈랴에서 끝난 2008년 제3차 양궁 월드컵 여자부 개인전 결승에서 빅토리아 코발(23·우크라이나)을 108-106(120점 만점), 2점차로 꺾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개인전 은메달리스트 윤옥희는 4월 크로아티아 2차 월드컵에 이어 양궁월드컵 개인전 금메달을 연거푸 목에 걸며 베이징올림픽을 두달 남짓 앞두고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극적인 역전승이었다.

3발씩 4엔드 12발을 쏘는 승부에서 윤옥희는 1엔드 7점을 두발이나 쏘며 24-27로 끌려갔다.

2엔드 28점을 쏘며 1점차(52-53)로 추격한 윤옥희는 3엔드 79-79 동점을 만든 뒤 4엔드 10-10-9점으로 세 발 모두 9점에 그친 코발을 2점차로 제쳤다.

3-4위전에선 박성현(25·전북도청)이 곽예지(16·대전체고)를 117-108로 누르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지난해 제44회 세계선수권대회 극적인 역전 금메달의 주인공 임동현(22·한국체대)도 남자부 개인전 결승에서 개인전 결승에서 1엔드 5점을 뒤지다 2점차 역전 우승을 일궈낸 임동현은 이번에도 브래디 앨리슨(20·미국)을 114-108로 제치고 남자 단체전 16강 탈락의 분을 달랬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열린 3차 월드컵에서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포함, 금 3개와 동 2개를 수확하며 2차 월드컵 금 1개, 동 3개의 부진한 성적을 만회한 것은 물론, 베이징올림픽을 두달 남짓 앞두고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의 위력을 과시했다.

한편 대한양궁협회는 이 대회 성적까지 합산해 여자 대표 박성현, 윤옥희, 주현정(26·현대모비스)과 남자 대표 박경모, 이창환(26·두산중공업), 임동현 등 올림픽 남녀대표 6명을 확정했다.

자메이카 볼트 100m 9초72 ‘세계新’

종전기록 0.02초 앞당겨

리복 그랑프리 육상

자메이카 스프린터 우사인 볼트(22·사진)가 남자 육상 100m에서 9초72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볼트는 1일 미국 뉴욕 아이칸스타디움에서 벌어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리복 그랑프리 100m에서 9초72로 결승선을 통과, 지난해 10월 아사파 파월(26·자메이카)이 작성한 종전 세계기록(9초74)을 0.02초 앞당겼다.

지난달 4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국제초청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76을 찍고 혜성처럼 등장한 볼트는 한 달이 채 안돼 세계기록을 새로 쓰면서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0순위 후보로 급부상했다.

10초03이 최고기록이던 볼트는 세 번째 100m 도전 만에 9초76을 찍어 육상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될성 부른 떡잎’이었다.

볼트는 이날 지난해 오사카 세계선수권대회 100m, 200m, 400m 계주에서 3관왕에 오른 타이슨 가이(26·미국)와 인간 탄환 레이스를 벌였는데 출발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면서 가이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우승했다. 가이는 9초85를 찍는데 그쳤다.

스포츠 쿠폰

2일 (월)

▲2008 메이저리그 〈LA다저스 : 뉴욕M〉(09 : 00·XPORTS)

▲2008 AFC 아시안컵 여자축구 〈대만 : 한국〉(18 : 50·XPORTS·SBS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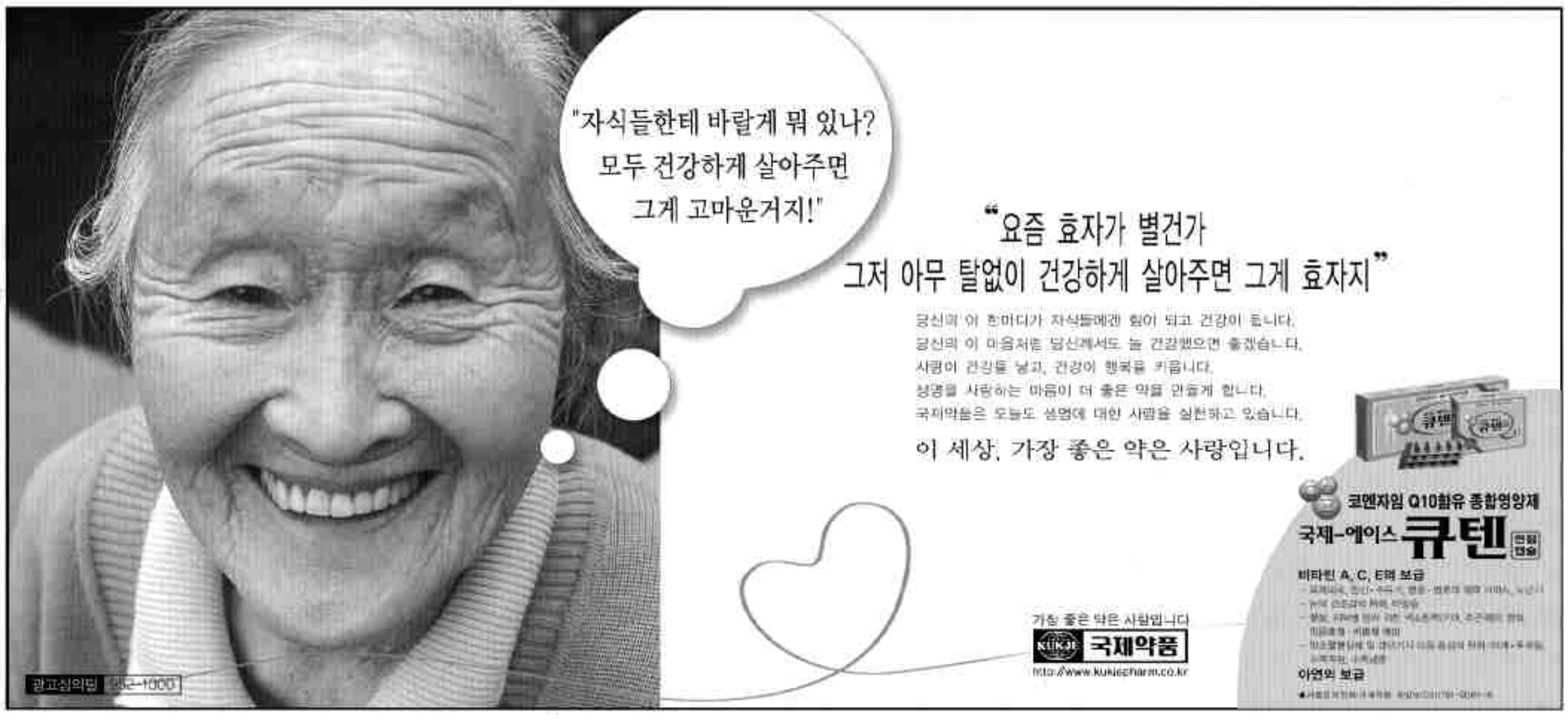
“한때 은퇴 생각했다”

박찬호 언론과 인터뷰서 밝혀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에서 구원투수로 재기한 박찬호(35)가 시즌 전 은퇴를 고려했었다는 뜻을 밝혔다.

박찬호는 1일(한국시간) LA 지역 언론 ‘롱비치 프레스 텔레그램’과 인터뷰에서 “은퇴를 생각했었다”며 “시속 90마일(144km)을 다시 던질 수 있을지 스스로 의문을 가졌었다”고 돌이켰다.

박찬호는 이어 “하지만 한국의 팬들로부터 많은 편지와 메모들을 받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며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한 한 시즌, 한 경기라도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다시 피칭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며 “어떤 역할을 맡던지 개의치 않는다”며 지금의 보직에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찬호는 “불펜에서 대기하면 상대 타자들이 그날 투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할 기회가 생긴다”며 “이를 통해 내가 공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